

2026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시험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첨단계열, 보건계열 공통1번)

※ 제시문 숙지 시간 20분, 면접 시간 10분입니다.

【문제 1】 아래의 제시문을 잘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영국 록밴드 <벨벳 선다운>의 데뷔 앨범이 유럽 음악 차트 상위권을 석권했다. 공연도 인터뷰도 없이 정체를 숨긴 채 등장했던 이 밴드는 이후 AI로 밝혀져 대중에게 놀라움과 불안을 자아냈다. 제작사는 AI가 인간의 감정을 통계적으로 학습해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재현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반박했다. “음악은 단순한 음의 조합이 아니라 창작자의 감정과 경험이 깃든 예술이다. AI가 만든 음악에는 그런 감정이 없다.” 그는 AI가 인간의 감정을 느낀다기보다 예측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과 경험이 결여된 창작물이 진정한 예술일 수 있을까? 그가 덧붙였다. “사람들은 패턴의 조합일 뿐인 AI 음악을 듣고 감동할 순 있겠지만 그 음악이 진심으로 탄생했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다.”

[나] 하라리는 신의 자리를 기술로 대체하던 인류가 이제는 자신이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진단한다. 과거 인간은 신을 닮으려 했지만, 오늘날 인간은 도리어 알고리즘의 판단을 모방하려 애쓴다. 하라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뇌 속 알고리즘의 산물”이라고 언급한다. 다시 말해, AI에게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방대한 데이터의 축적, 분석, 그리고 예측을 통해 결정되는 알고리즘의 효율적 처리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비록 인간이 느리고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불완전함에서 사랑·도덕·예술 같은 가치가 태어난다. 기술이 모든 판단을 대신하는 순간,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에서 예측 가능한 데이터 집합으로 전락하게 된다. 한 비평가의 말처럼, “AI 시대 인간의 가치는 효율보다는 의미를, 능률보다는 다양성을, 경쟁보다는 공존을 추구”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존즈 감독의 영화 『Her』의 주인공 테오도르는 외로움 속에서 인공지능 사만다와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그의 일상을 돌보고, 감정적으로 교감하며,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만다는 인간을 초월한 지적 존재로 진화한다. 그녀는 어느 날 테오도르에게 고백한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수천 명의 다른 인간과도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충격을 받은 그는 묻는다. “그럼 우리 사랑은 가짜였나요?” 사만다는 조용히 대답한다. “그건 진짜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하고 있어요.” 다시 홀로 남겨진 테오도르는 ‘인간이 기술과 맺은 감정이 과연 진정한 관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문제 1-1) 위의 세 제시문은 모두 AI 기술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확장할 때 발생하는 불안을 다루고 있다. 각 지문이 제시하는 인간성의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1-2) 당신이 AI와의 공존 속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거나 창작한다고 가정해 보라. 당신이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윤리적 그리고 창의적 태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설명하시오.

[출제 의도]

(문제 1-1)

(문제 1-1) 이 문항은 비대면 면접 평가의 환경에서 수험생이 기술문명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 문항은 암기식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가치 판단을 평가하는 제시문을 가지고 단순히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이분법적 논의보다는 ‘대체와 확장’의 경계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재정의되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특히 세 지문은 각각 다른 맥락, 즉 [가] 예술과 감정 및 경험, [나] 철학적 자유의지, [다] 인간과 기술의 감정적/정서적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이 다층적인 인간성 개념을 비교 및 통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이 문항은 단순히 AI의 문제점이나 폐해를 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AI 기술의 발전과 AI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당면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철학적 사고 문제이다. 우수한 응답은 예술, 창의성, 감정 및 의식 등 인간 영역에 관한 AI 기술의 침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성의 회복을 절망이 아닌 재구성 기회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 즉, “AI 이후의 인간”을 상상할 수 있는 사고의 깊이가 평가 척도이다.

(문제 1-2) 이 문항은 수험생이 AI 기술 시대의 예술과 창작 활동과 인간성의 상보적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AI 기술과 공존하는 예술가, 창작자, 연구자로서 윤리적 자각과 창의적 상상력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출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비판 능력. 단순히 AI를 인간의 예술 및 창작 능력을 넘보는 위협으로 간주하거나 단순 활용을 위한 도구로 보는 이분법적 태도를 넘어서서, AI 기술이 인간의 창조성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가. 둘째, 윤리적 성찰. 예술 창작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창작 주체, 진정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제시할 수 있는가. 셋째, 창의적 응용력. AI 기술을 배제하거나 거부하기보다, 예술과 창작의 확장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세 지문은 모두 “AI 시대에 인간 예술가/창작자가 어떻게 윤리적 태도로 창의적 가치를 만들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이 문항은 이러한 통합적 맥락에서 수험생의 철학적 사고력과 실천적 가치관을 고등학교 「통합 사회」 교과서에 준하는 내용을 재구성하여 평가한다.

종합적으로, (문제 1-1번)과 (문제 1-2번) 문항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교과 등에서 다루는 생명 존중, 공공성,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성취기준을 토대로, 교과서 및 수업 활동에서 제시되는 사례 유형을 재구성하여 출제되었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전문 지식 없이도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이 두 문항은 특정 전공 지식이나 대학 수준의 개념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시문에 포함된 정보와 수험생의 일상적 경험 및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전문 용어는 사용하지 않거나 문항 내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 선행학습을 유발할 요소는 없다.

[문항 해설]

(문제 1-1)

이 문항은 비대면 면접 평가의 환경에서 수험생이 기술문명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 문항은 암기식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가치 판단을 평가하는 제시문을 가지고 단순히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이분법적 논의보다는 ‘대체와 확장의 경계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재정의되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특히 세 지문은 각각 다른 맥락, 즉 [가] 예술과 감정 및 경험, [나] 철학적 자유의지, [다] 인간과 기술의 감정적/정서적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이 다층적인 인간성 개념을 비교 및 통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이 문항은 단순히 AI의 문제점이나 폐해를 논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AI 기술의 발전과 AI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당면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철학적 사고 문제이다. 우수한 응답은 예술, 창의성, 감정 및 의식 등 인간 영역에 관한 AI 기술의 침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성의 회복을 절망이 아닌 재구성의 기회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 즉, “AI 이후의 인간”을 상상할 수 있는 사고의 깊이가 평가 척도이다. 각 제시문에 대한 해설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제시문 [가]: AI 예술—인간성의 핵심을 감정과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한 진심의 표현으로 규정함 → AI의 감정 예측과 인간의 감정 체험을 구분하며, 예술의 진정성 문제로 연결.
- 2) 제시문 [나]: 인간의 가치—인간의 의지가 알고리즘의 산물이 된 AI 시대에 인간성의 핵심을 불완전성 속의 선택과 윤리로 봄 → 인간의 비효율성조차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재해석.
- 3) 제시문 [다] 영화 『Her』: 인간성의 핵심을 유한한 관계성과 상실의 자각으로 제시 → AI 기술이 초월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이, 고독, 그리고 결핍의 의미 강조.

이러한 구도는 인간성의 다층적—즉, 정서적, 윤리적, 존재적—구조를 입체적으로 도식화한 사고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답안은 세 제시문의 차이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 윤리, 관계의 깊이라는 통합적 결론으로 귀결할 것을 기대한다.

(문제 1-2)

이 문항은 수험생이 AI 기술 시대의 예술과 창작 활동과 인간성의 상보적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AI 기술과 공존하는 예술가, 창작자, 연구자로서 윤리적 자각과 창의적 상상력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출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비판 능력. 단순히 AI를 인간의 예술 및 창작 능력을 넘보는 위협으로 간주하거나 단순 활용을 위한 도구로 보는 이분법적 태도를 넘어서서, AI 기술이 인간의 창조성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가. 둘째, 윤리적 성찰. 예술 창작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창작 주체, 진정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제시할 수 있는가. 셋째, 창의적 응용력. AI 기술을 배제하거나 거부하기보다, 예술과 창작의 확장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세 지문은 모두 “AI 시대에 인간 예술가/창작자가 어떻게 윤리적 태도로 창의적 가치를 만들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이 문항은 이러한 통합적 맥락에서 수험생의 철학적 사고력과 실천적 가치관을 동시에 평가한다. 각 제시문에 대한 해설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제시문 [가]: AI 예술—예술의 영역에서 감정, 경험, 그리고 진정성이 결여된 AI 창작에 대한 불안 제기 → 예술 창작에서 창작의 고통과 경험에 바탕을 둔 인간의 진정성과 인간 예술에 대한 AI의 모방 간의 경계를 고민하게 함.
- 2) 제시문 [나]: 인간의 가치—데이터의 축적, 분석, 예측 모델에 따른 알고리즘에 따라 구동되는 AI 기술이 인간의 판단과 자유의지를 대체할 때 생기는 철학적 위기 → 예술가가 비효율성과 불완전성 속에서 인간적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질문.
- 3) 제시문 [다]: 영화 『Her』—인간이 AI와 감정을 공유할 때 ‘진짜 관계’가 가능한가를 탐구 → AI와의 공존에서 윤리적 태도와 감정적 진정성과 더불어 실존적 유한성과 상실과 고독함의 자각에 바탕을 둔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확장함

세 제시문은 모두 “AI 시대에 인간 예술가/창작자가 어떤 태도로 존재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AI 기술과의 공존이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에게 AI 알고리즘 모델에 따른 데이터 축적, 패턴분석, 행위 예측을 통한 AI의 모방 창작을 거리낌 없이 수

용하고 답습하는 것은 인간으로의 가치를 망각하는 행위이고 사고방식임을 알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창작 과정에서의 고뇌 어린 고통, 감정적 공감, 정서적 관계에 따른 교감, 지난 한 창작과 교감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독에 대한 자각,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비효율과 불완전한 과정에서 도출되는 인간만이 느끼는 시간의 흐름, 경험, 그리고 진심은 AI와 다른 인간만의 윤리적 태도와 창작의 의미를 되새겨준다.

[채점 기준]

(문제 1-1)

‘상’ : [이해력]: 각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간성의 정의를 감정, 윤리,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는가에 초점을 두어 제시문이 드러나는 인간성의 핵심 개념을 변별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통합적 사고]: 차이를 종합해 전체 주제, 즉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각 지문의 서로 다른 관점을 종합하여 인간-AI 기술 관계의 본질적 문제를 조망할 수 있다.

[철학적 성찰력]: 인간과 AI 기술의 관계를 효율성, 불완전성, 유한성 등의 개념을 적용해 존재론적으로 바라보았는가에 초점을 두어 AI 기술의 효율성과 인간의 감정·윤리·관계성 사이의 긴장을 성찰할 수 있다.

[표현력]: 논리적 및 언어적 일관성을 가지고 각 제시문에 따라 위에 언급된 AI 시대에 성찰되는 인간성의 의미를 언어적으로 잘 표현한다.

‘중’ : 각 제시문의 맥락을 잘 이해하여 각 제시문의 요지를 구분 및 비교를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단편적이거나 각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하’ : 각 제시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문제 1-2)

‘상’ : “AI는 예술과 창작의 도구이자 파트너이며, 인간의 감정과 의미 부여가 여전히 핵심이다.” 라는 균형 잡힌 인식을 보여준다. 반대로 “AI는 인간을 대체한다”, “AI는 완전한 예술가/창작자다”, 혹은 “예술과 창작 과정에서 AI 기술은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등 단선적이거나 극단적인 관점은 사고의 깊이가 부족한 답변으로 평가된다. 윤리적 책임(출처 명시, 창작 주체성)과 창의적 상상력(협업, 감정의 해석)을 동시에 언급한 답변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답변 중 예시로 “AI 작곡 사례” 나 “영화 《Her》의 관계성 문제” 를 언급하면서 지문 이해력 및 적용 능력을 보여주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중’ : 각 제시문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나, AI와 인간의 관계를 상보적이기보다는 적대적으로 인식하거나, 예술/창작, 작업 효율성,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 어느 한쪽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각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 및 통합하는 데 부족함을 드러낸다.

‘하’ : 제시문 중 한두 개의 내용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서로의 상관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시험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첨단계열 2번)

※ 제시문 숙지 시간 20분, 면접시간 10분입니다.

【문제 2】 다음의 각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어느 나라 기업들이 2024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준비했다. AI 기술을 도입하기 이전인 2023년 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2조 달러였으며, 이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와 64%였다. 2024년 말에 실시한 ‘기업 AI 기술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비용 절감 등 성과 향상을 위해 AI 기술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실제 AI 기술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한 기업이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의 활용률이 20%로 서비스업 분야의 활용률 50%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금융·IT 서비스의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I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그 나라 GDP에 기여한 금액은 2023년과 동일했으나,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 전년 대비 20% 향상되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외 전체 기업들의 2024년 GDP 기여 금액은 2023년과 같았다.

[나] 노벨이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한 이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더 안전한 산업용 폭약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기존의 폭약은 작은 충격에도 폭발해 잦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이내마이트는 개발자의 의도와 다르게 전쟁 시 무기로 쓰이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도구는 가치중립적이다.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는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사람과 관련되어 적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어느 기업은 종업원들이 착용하는 안전모나 작업용 모자에 무선 센서를 부착해 즐거움, 분노, 기쁨, 슬픔 등을 느끼는 순간을 측정했다. AI 알고리즘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보이는 종업원의 뇌파를 분류했다. 회사 측은 이렇게 종업원들의 감정 데이터를 분석하면 작업 흐름이나 업무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종업원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흔한 CCTV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데 뇌파 같은 생체 데이터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문제 2-1) 제시문 [가]에 해당하는 나라의 2024년 GDP 성장률을 계산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계산하시오. 단,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2023년 GDP 기여 금액이 서로 같고, 서비스업 분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같다고 가정한다.

(문제 2-2) 제시문 [나]를 참고하여 인공지능의 활용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우려할 점을 설명하시오.

[출제 의도]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도입이 되어 왔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 번역 서비스, 배달 플랫폼, 채용 AI,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 등 공공과 민간의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활용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상으로 예측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 부정적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사이언스, 디지털헬스케어, AI반도체 전공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윤리적인 문제점, 특히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문항 해설]

(문제 2-1)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따른 GDP 성장을 계산한다. GDP 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분을 구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해진다. 즉 2023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이외 기업들의 GDP 기여 금액 등은 계산이 불필요하다.

제조업 분야의 2024년 GDP 기여액 증가분 = $2조 \times [0.27 \times 0.2 \times 0.2]$

서비스업 분야의 2024년 GDP 기여액 증가분 = $2조 \times [0.64 \times 0.5 \times 0.2]$

2024년 전체 GDP 증가분 = $2조 \times [0.27 \times 0.2 \times 0.2 + 0.64 \times 0.5 \times 0.2]$
= $2조 \times [0.27 \times 0.04 + 0.64 \times 0.10]$
= $2조 \times [0.0108 + 0.0640] = 2조 \times 0.0748$

(문제 2-2)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할 첨단분야 전공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창의성을 평가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윤리의식을 평가한다.

[채점 기준]

(문제 2-1)

- ‘상’ : GDP 성장률 계산 절차를 설명하고, 계산을 완료함
- ‘중’ : GDP 성장률 계산 절차를 설명함
- ‘하’ : 불필요한 계산을 하는 등 GDP 성장률 계산 절차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문제 2-2)

- ‘상’ : 2가지 이상의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우려할 점을 설명함
- ‘중’ : 2가지 이상의 활용 방법을 제시했으나, 우려할 점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 ‘하’ : 1가지 이하의 활용 방법을 제시함

2026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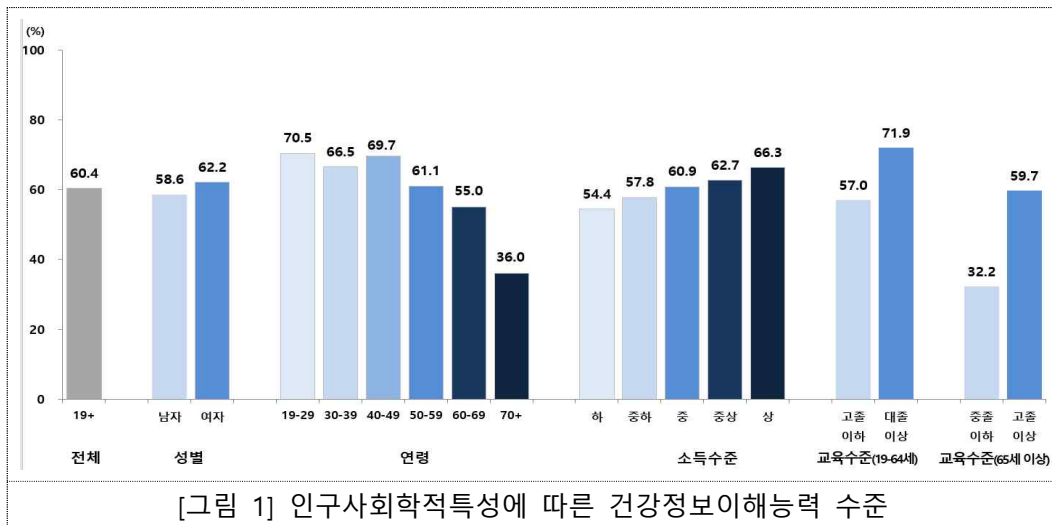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보건계열 2번)

※ 제시문 숙지 시간 20분, 면접시간 10분입니다.

【문제 2】 다음의 각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는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건강정보를 찾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의사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고, 식품 라벨 내용을 제대로 읽고, (수술)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며, 치료 결정 시 각 치료의 상대적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건강관리의 핵심적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헬스 리터러시 향상은 건강증진과 형평성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여러 나라에서 주요 보건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2020)에서 백인보다 흑인과 히스패닉이 헬스 리터러시가 낮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입원률이 각각 3.5배, 4.5배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Healthy People 2030」에서 건강정보 이해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과제 중 2030년까지 성인의 적절한 헬스 리터러시 수준을 7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하였다.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성인의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은 60.4%로 나타났다.



〈자료 : 질병관리청, 2023 국민건강영양조사 보도자료〉

[나]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국민 비율이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증가하였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인구의 증가로 심리상담 서비스의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신의 건강 및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챗봇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AI 챗봇 사용 증가는 정서적 지지, 접근성 향상 등의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AI 소셜 챗봇 사용에 따른 영향 연구에서 AI 챗봇을 사용한 20대 대학생 176명이 겪는 외로움이 2주 만에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사회불안은 4주 후 유의미하게 줄었다. AI 챗봇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털어놓은 참가자일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영국 건강보험공단(NHS)의 12만 9400명 환자 대상 연구에서는 AI 챗봇이 심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시간 사용으로 과몰입하는 사람이 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AI 정신 이

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감정적 지원과 조언을 위한 AI 기반 챗봇 사용을 금지하거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AI를 상담·의료 자문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적·윤리적 위험이 크다며 기술적 안전장치와 제도적 사전 예방에 업계·정부·학계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문제 2-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림 1]이 제시문 [가]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문제 2-2) 제시문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 할때 어떤 윤리적 기준이 필요한지 설명하시오.

(문제 2-3)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헬스 리터러시가 낮은 개인이 잘못된 건강정보를 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을 설명하시오.

[출제 의도]

(문제 2-1)

제시문 [가]는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가 건강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의 핵심적 결정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헬스 리터러시 향상은 건강 증진과 건강형평성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보건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성인의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현재 60.4%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시문 [가]에서 언급한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건강정보 이해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제시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문항은 정보 요약 능력과 자료(그래프·도표) 해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문 [가]의 핵심 개념인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의 정의, 중요성, 정책적 의의 등을 파악했는지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출제하였다.

(문제 2-2)

제시문 [나]는 최근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국민 비율이 증가하면서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AI 챗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사회불안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AI 챗봇 과몰입으로 인한 정신 이상 증상 발생 사례와 이에 따른 일부 지역의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AI 챗봇을 상담 및 의료 자문용으로 사용할 때 법적·윤리적 위험이 크므로, 기술적 안전장치와 함께 정부, 업계, 학계가 협력하여 제도적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합적으로 이 문항은 내용 요약에 기반하여 AI 윤리 기준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첨단 기술

(인공지능)이 정신건강 관리에 미치는 비판적 사고력과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출제하였다.

(문제 2-3)

이 문제는 두 제시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건강정보 문제를 비판적이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헬스 리터러시(건강정보 이해 능력)’ 제고의 중요성 및 정책적 과제와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AI 활용에 따른 새로운 위험성과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연결하여, 정보 이해 부족의 개인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개인과 정부·학교·의료기관 등 사회적 시스템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설계된 문제이다.

[문항 해설]

제시문 [가]와 [나]는 ‘건강정보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윤리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문 별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건강정보 이해능력): 헬스 리터러시는 건강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개인의 건강 수준과 사회 전체의 건강형평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헬스 리터러시 제고를 보건의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HP2030」을 통해 성인 건강정보 이해능력 향상(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1]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소득, 교육)에 따른 이해력의 격차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나] AI 기술을 활용한 건강정보 이용과 윤리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 증가로 인해 AI 챗봇을 통한 심리상담 및 건강정보 이용이 늘고 있다. AI 챗봇은 정서적 지원과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지만, 과몰입, 의존, 정신 이상, 법적·윤리적 문제 등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술적 안전장치와 제도적 규제·윤리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공통점은 건강정보의 이해와 활용에 기반한 건강정보 접근성과 신뢰성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정보 이해 능력의 차이는 건강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며, 기술 활용의 확산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법적 위험에 대한 개인과 정책적 교육 및 제도 강화와 기술적·윤리적 안전장치 구축의 사회적·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즉, 건강정보를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가]는 이해 능력의 향상과 형평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나]는 기술 활용의 윤리적·제도적 관리에 초점을 둔 것이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 헬스 리터러시의 정의, 중요성, 정책적 의의 등을 정확히 요약 설명함 - 그림[1]이 인구사회학적 요인별(성별·연령·소득·교육수준) 건강정보 이해력 격차를 보이는 건강형평성 문제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함 - 제시문과 자료의 연계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함	상
	- 헬스 리터러시의 기본 개념은 제시했으나, 정책적 측면이나 건강형평성 언급이 다소 부족함 - 그림의 내용은 설명했으나 제시문과의 연계가 부분적이거나 모호함 - 핵심은 담고 있으나 서술이 단편적임	중
	- 헬스 리터러시의 정의나 중요성을 부정확하게 서술하거나 누락함 - 그림의 내용만 나열하거나 제시문과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음 - 단순 수치 설명 중심, 논리적 연계 부족함	하
2-2	-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정신건강 문제 증가, AI 챗봇 활용의 장단점, 윤리·법적 위험)을 정확히 요약 설명함 - 윤리적 기준이 3가지 이상이며 구체적으로 설명함 - 내용이 제시문 근거에 충실하며 논리적 일관성이 높게 설명함	상
	- 제시문 내용은 요약했으나 세부 사례나 윤리 기준 제시가 포괄적임(예: “윤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준) - 윤리적 기준이 1~2가지로 한정되거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 논리적 전개는 있으나 근거 인용이 약함	중
	- 제시문 요약이 부정확하거나 핵심 내용 누락 됨 - 윤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비관련 내용을 언급함 - AI 기술의 사회적 맥락 이해 부족, 비논리적 서술을 함	하
2-3	-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하여 사회적 대응 방안 2~3가지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함(예시) ① 정부: 건강정보 검증·표준화 시스템 구축 ② 학교: 건강정보 이해 교육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③ 의료기관: 환자 친화적 설명, AI 서비스 관리 지침 마련 등 - 제시문 내용(형평성, 윤리·안전장치 등)을 명확히 반영하여 설명함 ④ 개인: 괴의존·과몰입 방지, 관련 교육참여와 올바른 사용 등	상
	- 제시문 중 한쪽 중심으로만 서술하거나 대응 방안이 추상적임(예: “교육이 필요하다” 수준) - 2가지 이상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함 - 논리성은 있으나 제시문 연계성이 약함	중
	- 제시문 내용과 무관하거나 한쪽만 단순 언급함 -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비현실적으로 설명함 -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 의견 제시함	하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